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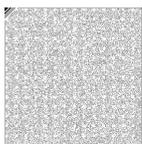
# 시음 주보

제2430호

2023년 1월 15일(가해)

연중 제2주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세례 | 이남규 루카(1931-1993), 40x360cm, 레드케임 스테인드글라스, 1988, 의정부교구 탄현동성당

## 입당송 | 시편 66(65),4 참조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 제1독서 | 이사 49,3,5-6

## 화답송 | 시편 40(39),2ㄱ과 4ㄱ,7-8ㄱ,8ㄷ-9,10(◎ 8ㄴ과 9ㄱ)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거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 제2독서 | 1코린 1,1-3

## 복음환호송 | 요한 1,14,12 참조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 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 복음 | 요한 1,29-34

## 영성체송 | 시편 23(22),5 참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허석훈 루카 신부 | 한강성당 주임

## 진짜를 알아보는 법!

세상이 좋아져 제품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여간 성가시지 않습니다. 샴푸를 하나 사려고 해도 뭐가 그리 복잡한 설명이 덕지덕지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내 머리카락에 좋을지 간단한 선택마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래 이거다.” 하는 경험을 합니다. 제 마음에 꼭 드는 제품을 발견하면, 그 기쁨은 참으로 한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마시는 기분과도 견줄만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고르는 데 성공의 쾌감을 누리려면, 자기 취향이 뚜렷하고, 원하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구원을 분명한 기준으로 기다렸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구원을 고대하며, 자신을 광야의 험한 삶으로 내몰았습니다. 세간에 알려지고 유명세를 치르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사람을 처음 대면하면서, 요한이 구세주를 알아보고 하는 말은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 무엇을 보았던 말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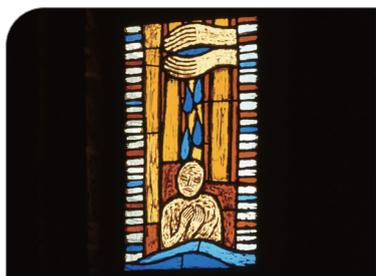
‘하느님의 어린양’은 하느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물입니다. 그렇게도 고대하던 사람을 만나서 첫마디가 “네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어야 할 사람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당당히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요한의

확고한 구원 의식입니다!

세상이 인정한 자신이었습니다. 유명해진 그가 이제는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입니다. 세속의 시각으로 보면, 자기 효용가치를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기쁨에 넘쳐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자리를 기쁘게 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자신이 물러가야 할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려는 겸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환희 이면에 요한에게 있을 회한과 마음에 스미는 스스로에 대해 부족함을, 오로지 한 사람을 향한 감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확고한 시선(취향)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는 시선(취향)! 진짜를 보는 눈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이 물러서야 하는 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절대적 자세입니다. 그 겸손으로 세상을 보는 삶의 자세가,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진짜를 보는 분명한 시선이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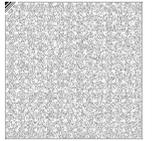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요한 1,32)

내 마음속 열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으나, 세례를 통해 그분께서 이미 내 마음에 깃드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요한 침묵 중에 빛나는 스테인드글라스 창을 바라보노라면 그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던 강렬함이 내 앞에 나타나는 느낌이 듭니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작품 설명



김정은 로사 | 방송작가

## | ‘하늘나라’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2020년 1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다녀왔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에 다녀온 거라 지금 생각해도 참 행운이었습니다. 함께 가는 청년성서모임의 성서 가족들과 복음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순례 전 시간부터 7박 8일의 여정의 하이라이트였던 예루살렘의 주님 무덤 성당, 그 비좁은 무덤 자리에 잠시 쉼을 조배했던 순간 모두 설렘과 감동, 행복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어땠는지 물어보면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복음의 땅이 맞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네팔에 있다.”

5년 전,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띠얏누리 봉사자로 네팔에 2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15명이 포카라에서도 좀 떨어진, 산 중턱 파레빌 마을의 작은 학교 강당을 임시 숙소 삼아 유치부 꼬마부터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고 지역에 필요한 노력 봉사도 하고 오는 여정이었습니다. 한여름, 우기로 질척해진 땅에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옆에 낀 비포장도로를 봉고차는 역동적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마을은 뽀얀 구름 속에 있었고 그 안엔 단추도 제대로 달리지 않고 신발도 갖추지 못한 가난한 어린이들이 천사처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네팔의 가난은 사진에서 본 것과 차원이 다른 엄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전깃불 없는 밤엔 숙소 안팎으로 쥐가 뛰어다녔고 곳곳에 흡혈 거머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열악한 환경에 봉사단원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며칠이 지나자 금세 적응했고 불편한 것보다 아름다운 것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매일 낮에는 미사를 드렸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한자리에 모여 때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지

었던 표정으로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한 단원의 기도를 들으며 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하늘나라구나.’

한국에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저는 또 놀랐습니다. 사진 속 ‘꾸숨’이란 아이가 저를 세상 사랑스러운 눈길로 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짐을 서로 들어주겠다고 버둥거리는 꼬마들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린아이들이 그토록 큰 사랑을 부어 주고 있었습니다. 국경, 인종, 언어 등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랑을 나누는 복된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늘나라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천사가 되어준 봉사단원들과 꾸숨, 히마, 딤피, 삼라차나와 산토스... 주님 구원이 그 땅끝까지 다다를 수 있기를 청하며 이름을 한 명씩 불러보며 기도합니다. 아멘.

환경 위기와 사회 위기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므로, 해결을 위해 빈곤 퇴치와 소외된 이들의 존엄 회복과 동시에 자연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 찬미반오소서 139항 -

한껏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 무엇, 어떻게 믿는다는 걸까요?



최현순 테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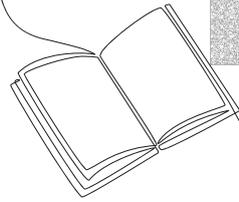
옛날에는 어떤 아이가 “우리 집에 황금 돼지가 있어.”라고 하면 친구들이 “와! 부럽다.” 그랬지만, 지금은 “보여줘.” 한답니다. 보고 만져보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지 살피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시대에 ‘진리’를 입증하는 공인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곧 천지의 창조주,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그리고 성령을 우리는 검증해 보일 수 있을까요?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믿나이다.’라는 신앙고백은 보이는 것, 검증 가능한 것만을 인정하는 세계에서 분명히 어마어마한 모험적 결단, 충격적인 모험임에 틀림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2천 년 전 팔레스티나에서 살다가 십자가에 처형되신 청년 예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분이 실존 인물이었음은 성경 외에 다른 문헌들도 증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이런 역사적 내용을 믿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신문 기사, 현미경으로 본 100마이크로미터(0.0001cm) 크기의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 천체망원경으로 본 1350광년 거리에 있는 오리온성운 등을 믿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굳이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도약’이요, ‘모험’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코린 4,18 참조)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

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로마 8,24)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실존 인물임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죽으심, 부활하심 안에 드러난 진리, 곧 하느님이 당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길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특히 어려운 삶의 순간에서도 하느님을 믿을 것입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 11,6) 다시 말해 믿음에는 신뢰의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뢰가 진심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보여 주신 길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제자가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요한 8,31)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사셨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계시된 진리의 내용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 사도행전의 큰 두 인물 베드로와 바오로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18세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두 인물이 서로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예수회 신부인 가브리엘 신부와 노예 상인이었지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로드리고 수사입니다. 이 두 인물은 원주민인 과라니족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한 서로 다른 방식을 대변합니다. 가브리엘 신부가 비폭력을 통한 저항을 상징한다면, 로드리고 수사는 무력을 통한 저항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행전도 두 인물을 서로 대비시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와 바오로입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바오로는 복음 선포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복음 선포의 여정은 베드로가 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복음 선포는 바오로를 핵심 인물로 삼아 전해줍니다. 사도행전은 이 두 인물이 사람들에게 전한 수많은 설교문들을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8개, 바오로의 설교 9개 등 24개의 설교문인데, 이 설교문들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듣는 대상에 따라 어떻게 서로 다른 설교를 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문에는 예언서의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

고,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잘 알려줍니다. 이에 비해 바오로는 다신교 문화에 젖어 있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했기에, 그의 설교문에는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설교가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 선포란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을 믿음으

“

**베드로와 바오로**

베드로: 예언서의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내용 중심으로 설교를 했다.

바오로: 다신교 문화에 젖어 있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했기에,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설교를 주로 했다.

”

로 이끌기 위한 것이기에, 청중이 처한 여건은 설교문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교도와 비슷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형식의 선교는 진정한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청중들을 배려하면서 설교하고 있듯이, 우리의 선교도 상대방의 여건을 고려하는 소통과 배려의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이

고 독단적인 선교는 다른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소통과 배려의 선교는 다른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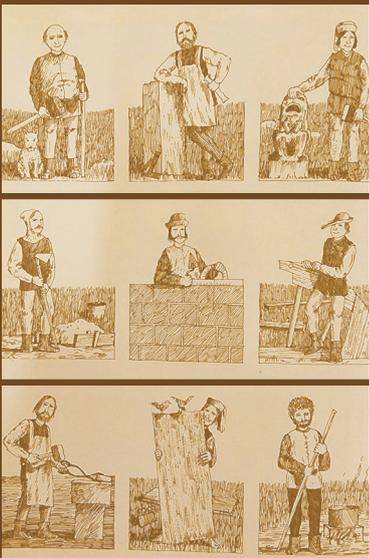
사도행전은 이렇게 두 인물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복음 선포의 여정을 보여주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을 가진 이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는지, 복음 선포의 사명을 살아가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 - 건축의 기획



황원옥 마리아에스텔 수녀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가톨릭건축사사무소 대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  
지어지기까지』  
- 데이비드 맥클리 -



성당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성당을 지으면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라는 동일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 건축이든 종교 건축이든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누구든 이런 물음에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 사이에는 현실과 이상이라는 괴리만큼 차이가 있기에 기억하고 지키면 좋을 원칙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건축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다섯 가지 건축의 여정이 있습니다. 기획 - 설계 - 계약 - 시공 · 감리 - 유지 관리, 여기에는 각기 추구하고 상징하는 의미와 함께 지켜야 하는 사항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원칙들을 숙지하면서, 건너뛰거나 가벼이 거스르지 않고 건축의 시작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공과 유지 관리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준비 자세로 성실하게 임한다면, 그 건축이 지향하는 목적에 합당한 결과물을 얻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선 기획 단계에서, 건축주는 무슨 건축을 왜, 어떻게 하고 싶는지 요구되는 공간과 쓰임새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능을 충족시키되 그 사용 목적에 따른 명확한 용도와 크기의 분배, 절제도 중요하며, 외적으로는 멋있지만 지내기에 불편하고 유지 관리가 힘든 공간을 짓는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건축주와 건축 관계자, 그리고 함께 하는 공동체의 의견 수렴과 조화를 먼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건축이란 정말 하나 된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모두 같은 출발선 상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건축주로서 기초 조사와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극

히 주관적이거나 강제성을 띠어서 안 되고, 보다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건축 관계자들 역시 용도와 특성을 고려한 규모와 법규 검토,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 운영 계획과 사업 일정을 무엇보다 우선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기획의 기초를 다지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세대를 지나오면서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집이라는 목적의식을 확고히 염두에 둔다면 성경에 제시된 사명과 함께 나눔과 소통, 치유와 선교의 미덕으로 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은 하면 할수록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보람되고 감사로운 종합예술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진행될 성당 공사 현장에서는 건축의 기본 원칙들이 지켜지고 각 공동체가 바라는 모든 선한 지향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 의한 내 집이 아니라,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속에 일치와 신뢰로 가득한 하느님의 집을 짓고, 그래서 하느님이 기뻐하실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 가톨릭교회는 화장 후 유골을 뿌리는 것(산골)을 금지한다면 서요? 이유가 뭔가요?

예전에 어느 교우께서 아버지의 장례 미사를 마치신 직후에 “이제 저희 아버님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라고 물어보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죽음 이후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미지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미리 경험해봤을 수는 없기에, 종교를 비롯한 여러 출처에서 제시하는 설명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후 세계에 대한 묘사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설명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무신론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완전히 무(無)로 돌아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기억도, 의식도 전부 사라지면서 영혼조차 남기지 않고 소멸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다음 생이 있어서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거나,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일부로 순환하게 된다는 식의 설명도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명이 있나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과정을 각기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가장 큰 희망을 제시하는 설명은 단연코 우리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앞에서 제시해드린 그 어떤 설명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제대로 떨쳐내지 못합니다. 죽음은 피하고 싶은 무서운 장애물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죽음이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이니 세상에서 깃

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라는 전례 중 사용되는 기도문이 우리의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대로 사는지 돌아해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교회가 화장 후 유골을 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장 큰 희망을 선사하는 가르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절망적인 사후 세계를 뒤쫓는 실천에 그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이죠.

교회는 산골이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유골을 산이나 바다 등에 흩어 버리는 것은 한 사람이 죽음으로 완전히 소멸해버렸음을 선언하는 듯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연으로 되돌아가도록 놓아주는 것으로 읽힐 염려도 있습니다. 나아가, 윤회의 특정 단계에 들어간단가,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었다는 식의 표현으로도 읽힐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반면, 유골을 묘지에 잘 모시는 것이야말로 전인적으로 한 인간이 온전히 부활하게 되리라는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기에 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골을 묘지나 교회 내 납골당 등에 모시는 교회의 전통은 한 사람의 죽음이 개인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공동체가 그 사람의 죽음을 함께 기억하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이 통공 안에서 하나의 교회 안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산골을 금지하는 것은 교회가 죽음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최고의 희망만을 바라보며, 살아서도 먼저 부활의 삶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입니다.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월 18일(수)~25일(수)은 그리스도인 일치를 간구하는 일치 기도 주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미사 후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www.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전준희 신부	강일동 본당 부주임	정직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7년 1월 18일 박항영 프란치스코 신부(38세)
- 1956년 1월 17일 박우철 바오로 신부(72세)
- 2019년 1월 19일 장홍선 요셉 신부(81세)

##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 · 수도회이거나, 서울대학교 사회사목국 · 서울대학교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 아멘.

## 교구청 알림

### 서울대학교 온라인 예비신자 교리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http://www.samok.or.kr))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내용 참조 / 신청: 본당 사무실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매주(금) 12시15분  
곳: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 26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3월3일~11일(8박9일)  
주관: 성서못자리 / 지도: 이주형 신부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데레사

### 제134차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가톨릭사회교리는 사회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때: 2월6일~3월27일 매주(월) 19시~21시(8주)  
곳: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회비: 8만원(우리 454-009601-13-001 천주교서울대학교)  
문의(신청): 02)727-2431, 02)773-1050(50명) 사회사목국 정의평화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atholicjp.or.kr](http://www.catholicjp.or.kr)) 참조

###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讎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53차 미사 1월1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서울대학교 청계동본당, 장연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복讎분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1월24일 화해미사는 설연휴로 인해 없습니다) / 문의: 02)727-2420

### 2)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때, 곳: 1월27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 제1회 순교자 학술연구논문 공모전 및 시복시성 기원미사

1) 제1회 순교자 학술연구논문 공모전  
과제명: '성인, 복자, 가경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학술연구  
연구비: 건당 1천만원 내외 / 연구기간: 12~24개월  
응모자격: 천주교회사 연구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석·박사학위 소지) / 응모기한: 3월31일(금)까지  
응모방법: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문의: 02)2269-0413 서울대학교 순교자현양위원회

2)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나님의 종 '김큰아기 마리아'  
때: 매일 셋째주(화) 1월17일 오전 10시(182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서울대학교 순교자현양위원회

### 제46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때, 곳: 1월19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 갤러리1898 휴관 안내 / 문의: 02)727-2336

갤러리1898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1월3일(화)부터 2월7일(화)까지 휴관합니다

###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1) 영성상담 봉사자 모집

지원대상: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가톨릭상담봉사자 3급 자격증 소지자, 심리학·상담심리 학사 이상, 타 전공자 중 영성상담봉사를 꼭 하고 싶은 신자 / 문의: 02)727-2126  
파견본당: 서울대학교 가재울·시흥동·신내동·혜화동 예정 / 모집마감: 1월27일까지(2월3일 합격자 통보)  
신청안내 및 방법: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 참조

####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학교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4지구(종로·성북) 성령기도회**

미사·강의: 김도영 신부 / 문의: 010-3321-1863  
 때, 곳: 매일 셋째주(금) 1월20일 13시~16시, 길음동성당

**화요기도 피정(파티마평화의성당)**

때: 매주(화) 10시~14시(미사) / 중식 제공  
 곳: 파티마 평화의 성당 / 문의: 031)952-6324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2월1일~28일 / 문의: 010-4198-7970

**노들담 청년 침묵 피정(노들담수녀회)**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선착순 7명  
 때: 1월27일(금) 20시~29일(일) 15시  
 곳: 노들담수녀원(인천 계산동) / 문의: 010-3930-6730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곳: 2월18일(토), 여사울·신리·봉수산성지  
 문의: 010-3080-9104 사전접수 필수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잡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때: 1월25일(수) 19시30분 / 대상: 남녀 청년  
 곳: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B401호 / 010-7197-1390  
 접수: 카가오톡 채널 '착한목자수녀회'

**혼인재발견(르트루바이) 주말 피정**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부를 초대합니다  
 다 배우자와의 갈등 극복과 관계 회복을 위한  
 피정 안내입니다 / 문의: 02)929-2141  
 때, 곳: 2월24일~26일(2박3일), 성 앙베르 센터(서울)

**바로로말 헤화나무 1월 피정**

주제: 새해를 성모님과 함께  
 강사: 박상운 신부(목주기도학교)  
 때, 곳: 1월28일(토) 14시~17시(주일미사 있음), 현장과  
 온라인 피정 가능 / 문의(접수): 010-9759-0882(문자)

**가정선교회 2월 성가정영성 피정**

강사: 최황진 신부, 박재찬 신부, 이현주 회장  
 때, 곳: 2월1일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준비: 미사, 개인 식수 / 문의: 010-6281-8626,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효산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월27일~30일·2월3일~6일·2월24일~27  
 일·3월10일~13일·3월24일~27일, 도미니코 수  
 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  
 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눈꽃산행: 1월27일~29일, 2월4일~6일, 2월12일  
 ~14일, 2월18일~21일, 2월24일~26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체현시와 성모승 천번 기도회**

때: 1월16일(월) 12시30분~17시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  
 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제11강남지구 성령세미나 '일어나 가자'**

강의·안수: 양홍, 박용일, 김인성, 홍성학, 김효성, 김일  
 영, 김영준, 이창진, 양창우 신부 / 문의(문자접수): 010-  
 4667-3792 서 카타리나, 010-8694-3782 정 루시아  
 때, 곳: 2월3일~3월31일 매주(금) 19시20분~22시  
 (9주간), 역삼동성당 / 회비: 3만원(교재 포함)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침묵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눈꽃·자연순례: 1월28일~30일·2월3일~5일·2월9  
 일~11일·2월13일~15일·2월18일~20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어르신 선종 교육 '죽음-유택(선종) 강의-미사**

때: 1월31일(화) 10시~13시 / 문의(접수): 02)766-7370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가톨릭여성연합회 영어민 영어회화 초급반 모집**

때: 매주(화) 14시~16시(주1회, 2시간)  
 곳: 가톨릭회관(명동) 513호 / 문의: 02)778-7543  
 회비: 3개월 12만원(연회비 별도)

**예수회 이나시오영성연구소 프로그램**

내용: 하느님의 사랑과 나의 응답(영신수련 중심  
 의 심화학습, 수행으로 초대) / 담당: 권효섭 신부  
 때, 곳: 2월21일(개강 예정)부터 매주(화) 14시~16시  
 (18주), 비대면 온라인 / 홈페이지: <http://finigopress.kr>  
 2월16일까지 선착순 접수  
 문의: 02)3276-7799 / 10시30분~16시

**장례지도사(봉사자·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곳: 의정부교구청 내 신앙교육원 / 팩스: 031)837-0144  
 카페(<http://cafe.daum.net/c-sjr>) 우리들의 이야기 참조  
 문의: 031)874-6272 연령회연합회·상장례학교

봉사자반	3월4일~5월13일 매주(토) 9시~18시	50명
자격증반	3월4일~10월28일 매주(토) 9시~18시	30명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내용: 성경(교의·전례·교부·교회문헌·이콘) 속의  
 성모님·성모님 영성(사도직·발현·참된 신심), 33일  
 봉헌기도 / 문의(접수): 010-2724-4819 마리아학교

대면반	2월7일~7월25일 매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호 / 회비: 16만원 계좌: 우리 1006-301-276411티없으신성심
온라인반	2월9일~7월26일 매주(목) 낮반 14시~16시·밤반 20시~22시

**2023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선교사(교리교사) 자격 수여  
 접수: 1월17일(화)까지 / [ci.catholic.ac.kr](http://ci.catholic.ac.kr)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교리교육 학과	주 5일 주간(2년)	세계 3년 넘은 견진자 입학 2년 넘은 수도자
종교교육 학과	주 4일 야간(2년)	타 대학에 적이 없고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신학심화 과정	주 3일 주간(1년)	본원 교리·종교학과 준한 과정 이수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2023년 교황청 꿈나무 캠프**

대상: 초등부 3~6학년 선착순 150명  
 때: 7월31일(월)~8월2일(수)  
 곳: 한미음청소년수련원(의정부)  
 회비: 17만원(교황청 어린이전교회  
 회원 별도) / 문의: 02)2268-7103  
 홈페이지: [www.pmsk.net](http://www.pmsk.net)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곳: 3월 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가톨릭  
 회관 / 문의: 010-9590-4560, 010-5236-5493

**CaFF영화제작워크숍 11기 수강생 모집**

때: 3월8일~6월17일 매주(수) 19시~21시30분(15주)  
 접수: 홈페이지([caff.kr](http://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가톨릭은(생활성서 온라인 클래스)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 공부와 기도에 관심 있는 분(수시 접수)  
 내용: 저자 직강(김혜운 수녀·김효준 신부·이용권 신부·  
 김영선 수녀) / 문의: 010-3092-1108([www.catholicon.co.kr](http://www.catholicon.co.kr))

**2023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원서접수: 2월10일(금)까지 / 우편접수 가능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2023년 신년 은사·치유 세미나**

강사: 한연홍 신부 외 수도자, 평신도 회장(12명)  
 때, 곳: 1월27일~4월14일 매주(금) 오후 9시30분  
 ~오전 3시(12주간),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출발(버스):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 20시, 청주교  
 속터미널 앞(다이스 건너) 20시20분 / 문의: 010-  
 4400-1344, 043)213-9103 청주교구 성령봉사회

**토마스머튼 영성 배우기(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1	3월18일(토) 15시~19일(일) 14시	입문반 수료증 수여 문의: 010- 6791-0071
2	4월29일(토) 15시~30일(일) 14시	
3	6월10일(토) 15시~11일(일) 14시	
4	7월15일(토) 15시~16일(일) 14시	
5	9월16일(토) 15시~17일(일) 14시	
6	11월18일(토) 15시~19일(일) 14시	

**신앙과 삶의 통합-평신도를 위한 신학 기도훈련(한국CLC)**

개별 강좌 신청, 청년할인 / 문의: 02)333-9898

청년들을 위한 기도훈련 -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	1월30일~3월6일 (월), Zoom(6주)	CLC김잠이 성경 묵상과 나눔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 기도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1월31일~3월7일 (화), CLC사부국(6주)	CLC김잠이 성경 묵상과 나눔
목요신학강좌 트랙 Ⅲ-9-교회와 세상을 다시 보다 교회로 사는 기쁨 등	2월23일~3월30 일 (목), 현장· 녹화(6주)	주원준, 강영욱 박 사, 이진현, 장동 훈 신부, 정희완 신부, 현재우 박사

**예수회센터 봄학기 강좌**

3월 개강 /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신앙성경과 영성생활-사복 서의 특징과 영성적 가치	현장 강의: (월) 10시~12시 동영상 강의: 링크 발송	임수희 박사
구약성경 아카데미 -여호2월영	현장 강의: (목) 19시30분~21시 동영상 강의: 링크 발송	주원준 박사
그리스도교와 불교간의 대화 현장	현장 강의: 매주(화) 14시~16시	서명원 신부
영성과 철학상담- 세상과 마주하기	실시간 줌(Zoom) 강좌: 매주(화) 19시~21시	박병준 신부 홍경자 교수

**커피비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서울성모병원 일반인 호스피스 교육**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때, 곳: 2월8일(수)~9일(목) 9시~17시,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 / 1월8일~31일 선착순 접수 전화 접수 후 입금바랍니다 / 문의: 02)2258-1901, 1904  
회비: 5만원(마감 후 취소 불가), 당일 접수 5만5천원  
계좌: 우리은행 1005-101-712022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평생교육원 2023년 봄학기 수강 모집**

내용: 가톨릭 전례꽃꽂이(일반·지도자·최고지도자)·연령회활동실무·성경치유·성경성지·전례음악 등, 문화예술 글쓰기·사진·오르간·민화·음악레슨 등, 전문자격 아로마·복지원에·미술심리 등  
곳: 가톨릭대평생교육원(부천 역곡)  
문의: 02)2164-6587, 8(cukedu.catholic.ac.kr)

**2023년 연도아카데미 전문강사과정 모집**

대상: 본당 또는 관련단체에서 연도전문강사로 활동하실 분 / 교육기간: 1년 과정(1학과와 2학기로 진행)  
과정: **상장례이론** 비대면 온라인 수업, 연도실기 대면 강의실 수업 / 회비: 각 학기당 26만원  
때, 곳: 매주(목) 19시~20시40분(3월 개강),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상장례음악연구소 / 문의: 010-3211-8941  
주최: 서울대학교 연례회연합회  
주관: 가톨릭 상장례음악연구소

**온라인 '성가정생활캠프' 가족 신청**

우리는 소년 예수님을 애대게 찾는 부모일 수 있고, 사랑하는 주님을 잃고 실의에 빠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일 수 있습니다  
성가정생활캠프에 접속하시고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되찾아 신앙의 활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담당: 안충석 신부  
함께하는 아: 임병현 신부, 최대환 신부, 성영 교수  
홈페이지: www.holyfamilycamp.com  
문의: 010-8760-2899 안충석 신부

**모집**

**시스피나 시니어 여성 합창단원 모집**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 음악원

**가톨릭합창단 2023년 상반기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50대 남녀 교우 / 010-3211-5195 문자 문의  
오디션: 2월11일(토) 14시 /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명동대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 공지 참조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정기단원 모집**

때, 곳: 1월27일(금), 국악성가연구소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자유곡 1곡  
지도: 강수근 신부 / 문의: 010-3733-6526  
벨칸토 성악 교실: 성가대·초보자 환영 / 문의: 010-2252-2974 강신옥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서울대학교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할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 문의: 02)338-7831  
때: 2월5일 15시 / 대상: 9세~13세 가톨릭(예비) 신자  
연습: (화) 18시·(일) 13시-둘째주 명동대성당 10시 미사 / 오디션: 자유곡 1곡 및 음감테스트  
곳: 청년문화공간J동교동(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접수: 홈페이지(www.yju.or.kr) 부서소개 게시판 참조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1월19일(목) 12시, 가톨릭회관 3층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월례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1월30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원주교구 사회복지 신년미사에 초대합니다**

미사집전: 조규만 주교(원주교구장) 외 사회복지전담 사제들 / 문의: 033)742-9113 원주, 02)2269-2930 서울  
때, 곳: 1월26일(목) 오후 2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명동대성당 오르막길 우측 건물)

**생명이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곳: 도미니코 수도회(주최, 강북구 수유동)

성체미사	매주(수) 19시30분	문의:
성토마스 성체신심회	넷째주(토) 10시	010-5818-8431

**안내**

**천주교 서울대학교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기도패 신청**

추모와 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합동 위령미사 봉헌(명절·위령의날), 매월 1회 추모와 축복미사 봉헌 / 문의: 02)2021-2700 사무실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예약): 010-3173-2665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전문심리상담: 개인심리치료, 가족심리치료(정서불안·우울·분노·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등), 종합심리검사

**직원모집**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정규직 직원 모집**

분야: 사회복지사 1명 / 채용시까지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지원서 접수

**서울꽃동네 신내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본 시설은 노인정질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어르신들 정성껏 돌보아 주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분야: 요양보호사, 조리원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02)490-2609(sinkflower3@hanmail.net)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사무원 모집**

저희 수도회에서 함께할 사무원(회원관리 등)을 모집합니다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채용시까지 이메일(johnofgod\_kr@naver.com) 접수

**대치2동성당 미화원(계약직) 모집**

대상: 세례받은 성실하신 분(1명)  
업무: 성당 청소 및 제반 사항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2월11일(토)까지 방문·우편(우 06282,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540(대치동)) 및 이메일(pasa69@seoul.catholic.kr) 접수 /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연락)

**반포1동성당 사제관 청소 직원(계약직)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1명) / 문의: 02)517-6242  
업무: 사제관 세탁, 청소(주 3일 근무)  
서류: 응시원서(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우편(우 06542, 서울시 서초구 주흥1길 6, 반포1동성당)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청 회계관련직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회계 관련 경력직 우대)  
분야: 회계 관련 담당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2월5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학교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실례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수도원(대림동)	010-2042-8353 심재현 신부
성심수녀회	1월28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1월29일(일) 14시	아프리카잠비아선교회후원회(가톨릭회관 526호)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TV·특별 중계] 새해맞이 평화로운 음악회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새해맞이 평화로운 음악회>는 2023년의 희망과 응원을 음악에 가득 담아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의 진행자 장일범의 진행과 지휘자 성기선이 이끄는 전주 신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리고 피아니스트 원재연, 소프라노 한경성, 바리톤 송기창의 무대까지! 새해의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새해맞이 평화로운 음악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방송시간 | 1월 22일(주일) 7시 20분, 1월 23일(월) 23시 20분

[TV] '공사다몽' 연속방송

공차는 사제들의 다양한 꿈, <공사다몽>! 다시 하나 되는 가톨릭 공동체를 위해 신부님, 수사님들이 뭉쳤습니다. 지역 가톨릭 공동체의 리더인 신부님들과 수사님들이 유니폼을 입고, 풋살화의 신발 끈을 동여매고 그라운드를 누빉니다. 총 124명, 12개 팀으로 참가하는 사제 풋살대회 <공사다몽>! 공차는 사제들의 다양한 꿈, <공사다몽> 과 함께 가톨릭 공동체의 화합을 느껴보세요.



방송시간 | [1~4회] 1월 22일(주일) 13시 20분~16시, [5~6회] 19시 20분~21시  
[7~9회] 1월 23일(월) 15시~17시  
[1~6회] 1월 24일(화) 1시~5시, [7~9회] 19시~21시

[라디오] 기도의 오솔길, 강소영 수녀입니다  
“누가 너를 돌보아 주었느냐”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의 인기 프로그램인 '기도의 오솔길'은 성바로딸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가 청취자 사연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따뜻한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간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에, 설 연휴를 맞아 새로운 형태의 가족 공동체를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라는 보물을 나눠온 '기도의 오솔길'. 기도를 청하실 분은 홈페이지와 문자, CPBC 애플리케이션 뺑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월 23일(월)~24일(화) 16시~16시 50분

[라디오] 청년 힘들 땀 말해요  
“예술작품 속의 청년 이야기”

<청년 힘들 땀 말해요>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N포 세대 '청년'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콘텐츠가 되고자 유명한 연사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초대 손님을 모셔 그들의 극복담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특히, 설 특집으로 '짧은 인문학 강의'를 마련합니다. 미술사 연구소장이자 미술사가 이현(효주아네스) 씨가 문화 예술(미술, 영화, 책) 분야의 수많은 이야기 속 청년들에게 도움 될 만한 요소를 찾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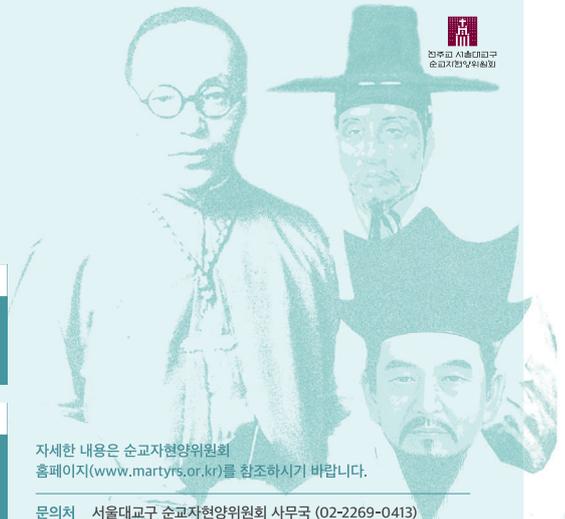


1월 22일(주일) 13시~14시(진행: 이정민 아나운서)

제1회 순교자 학술연구논문 공모전

천주교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에서는 '성인·복자·가경자 그리고 하느님의 중' 학술연구를 지원합니다. '순교자 현양'사업에 많은 연구자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b>과제명</b> '성인, 복자, 가경자 그리고 하느님의 중' 학술연구	<b>연구비</b> 건당 1천만원 내외	<b>연구기간</b> 12 ~ 24개월
<b>응모자격</b> 천주교회사 연구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 (석,박사학위 소지)	<b>응모기한</b> 2023년 3월 31일(금)까지	<b>응모방법</b>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학술연구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메일 제출



자세한 내용은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사무국 (02-2269-0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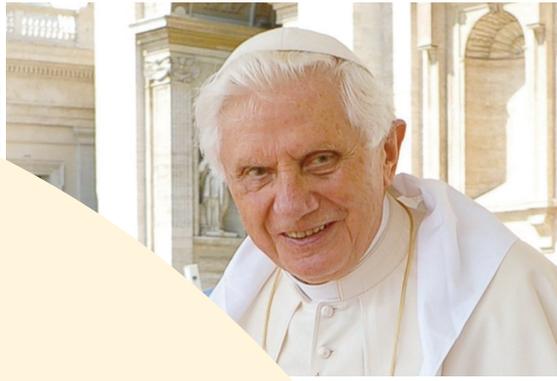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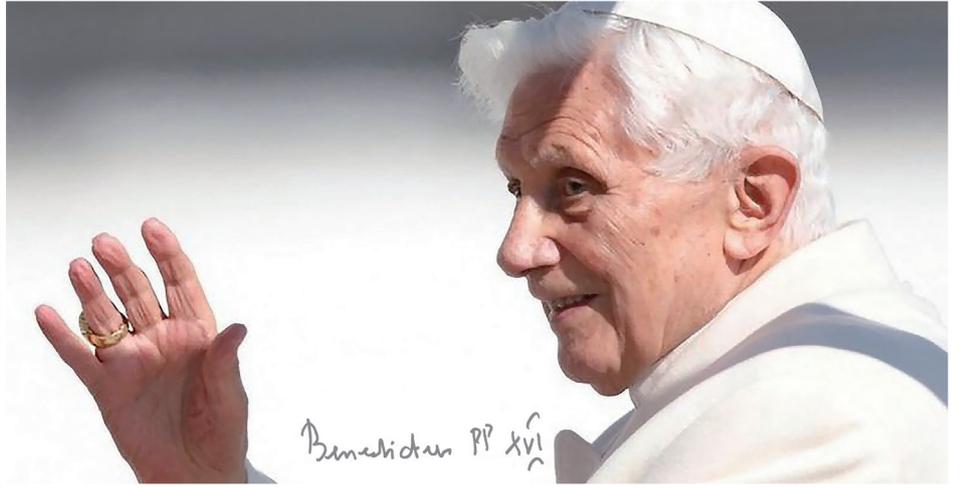
Benedict XVI  
265th Pope of the Catholic Church

##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선종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께서 2022년 12월 31일(토)  
오전 9시 34분(한국 시각 오후 5시 34분)에  
향년 95세로 선종하셨습니다.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베네딕토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교황 베네딕토 16세

- 1927년 4월 16일 요제프 라칭거, 독일 파사우 교구 마르크틀 암 인에서 출생
- 1946년 ~ 1951년 프라이징 대학과 뮌헨 대학교에서 철학과 신학 전공
- 1951년 6월 29일 프라이징에서 사제 수품, 뮌헨 - 모자크 성 마르틴 성당 보좌신부
- 1951년 ~ 1952년 뮌헨 - 보젠하우젠 성혈 성당 주임신부
- 1952년 ~ 1954년 프라이징 신학교 교수
- 1953년 신학박사 학위 취득
- 1954년 ~ 1957년 프라이징 철학 - 신학대학에서 교의학과 기초신학 교수
- 1957년 뮌헨 대학교에서 기초신학과 교수 자격 취득
- 1958년 ~ 1959년 프라이징 철학 - 신학대학의 교의학과 기초신학과 객원 교수
- 1959년 ~ 1963년 본 대학교 기초신학과 정교수
- 1962년 ~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전문가로 참가
- 1963년 ~ 1966년 뮌스터 대학교 교의학과 교의사학 정교수
- 1966년 ~ 1969년 튀빙겐 대학교 교의학과 교의사학 정교수
- 1969년 ~ 1977년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교의학과 교의사학 정교수
- 1976년 ~ 1977년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부총장
- 1977년 3월 24일 뮌헨 프라이징 대교구장
- 1977년 5월 28일 대주교 수품
- 1977년 6월 27일 추기경 서임
- 1981년 11월 25일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교황청 성서위원회 위원장, 국제신학위원회 위원장
- 2005년 4월 19일 제265대 교황으로 선출
- 2013년 2월 28일 교황 사임
- 2022년 12월 31일 선종



# 나의 영적 유언서

인생의 늦은 시기에 내가 겪은 세월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무엇보다 나에게 삶을 주시고, 혼란스러운 여러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인도해주시며 모든 은총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주님은 내가 미끄러질 때마다 항상 나를 품어주시고,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돌이켜보면 어둡고 힘겨운 여정조차 모두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주시는 것이 그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나를 위해 분명한 빛처럼 사랑으로 멋진 가정을 준비해준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아버지의 명료한 믿음은 자녀인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줬고, 어머니의 깊은 헌신과 큰 선행은 내가 충분히 다 감사할 수 없는 유산이다. 누나는 수십 년 동안 나를 애정 어린 보살핌으로 도왔다. 이러한 선행과 동행이 없었다면 나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생애에 걸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친구와 이웃,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 나의 아름다운 조국에도 감사드리며, 고국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들 속에서 나는 믿음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 땅이 믿음의 땅으로 남길 기도하며, 친애하는 독일 국민들이 믿음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제2의 고향이 된 이탈리아와 로마를 향해서도 특히 감사하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모든 이에

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교회의 모든 이에게 말한다.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연 과학과 역사적 연구는 종종 가톨릭 신앙과 상충하는 반박할 수 없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듯 보인다. 나는 오래전부터 자연 과학의 변화를 경험했고, 반대로는 신앙에 반하는 확실성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볼 수 있었고, 이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관련된 철학적 해석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다른 한편으로 자연과학과 대화하는 것 또한 믿음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

내가 신학, 특히 성경과학(biblical science)이란 여정에 동참한 세월이 60년 됐다. 그리고 다른 세대가 거듭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론들이 단순한 가설로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다. 그것은 자유주의 세대, 실존주의 세대, 마르크스주의 세대가 해당한다. 나는 이러한 얽힌 가정들 속에서 믿음의 온당함이 어떻게 다시 나타나는지 봤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교회는 모든 부족함에도 진정으로 그의 몸이다.

마지막으로 겸손되이 요청한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한 거처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이에게 날마다 나의 진심 어린 기도가 향할 것이다.

기사 출처 | 가톨릭명화신문

##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기도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교회를 다스렸던  
주님의 종 베네딕토를 위하여 바치는  
하느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한때 교황 베네딕토에게 돌보게 하셨던  
양 떼와 더불어 충실한 종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베풀어 주소서.

교황 베네딕토는 지상에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신비를  
충실히 거행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천상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종 베네딕토를  
슬기와 사랑으로 돌보시어  
은 교회를 가르치는 교사로 삼으셨고,  
교황 베네딕토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하였나이다.

성자께 간구하오니, 교황 베네딕토를  
영원한 영광 안으로 만가이 맞아 주소서.  
주님의 양 떼를 돌보는  
대사제로 뽑으신 주님의 종을  
이제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게  
사제단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종 베네딕토에게  
영원한 행복을 상급으로 주시고,  
저희에게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선물을  
자비로이 내려 주소서.

저희는 믿음과 확신으로 교황 베네딕토를  
주님의 자비에 맡겨 드리나이다.  
주님의 종 베네딕토는 인류 가족 안에서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이루는 도구였나이다.  
교황 베네딕토가 성인들과 함께 언제나  
이 평화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Benedict XVI  
265th Pope of the Catholic Church

## 추모의 글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께서 2022년 12월 31일(토) 오전 9시 34분(한국 시각 오후 5시 34분)에 향년 95세로 선종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천주교인뿐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황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별의 큰 슬픔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심을 묵상하며 상념에 젖게 됩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께서 특히 인간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큰 관심을 두셨는데, 2006년 당시 정진석 교구장님께서 추기경 서임식을 앞두고 계실 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친히 전화를 거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생명윤리에 반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우리 사회 모두가 열광하고 있는 와중에, 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하느님의 생명윤리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 연구를 제시한 정진석 추기경님의 용기를 칭찬하시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깃발을 혼자 들고 아주 잘해주셨다. 추기경님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신 일화도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께서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존중하면서도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힘쓰셨고 젊은이들을 위한 사목에 큰 힘을 쏟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역사의 근본적 문제는 하느님을 인간의 지평에서 떼어 놓는 데에 있다.” 인류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빛을 외면함으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파

괴적인 결과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신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기에 위기가 생기고, 기도와 전례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가 나타나며, 선교를 등한시한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는 교황님으로 재임하신 8년간,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과는 또 다른 면에서 교회에 크나큰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내적인 면을 강화하고, 영혼의 힘을 기르는 대피정과도 같은 시기를 보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전임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을 ‘위대한 교황’이라고 칭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지성의 능력과 통찰력 때문에 위대했고, 신학에 대한 지대한 공헌 때문에 위대했으며, 교회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위대했고, 자신의 성덕과 신앙심 때문에 위대했습니다. 그분의 정신은 세세 대대로 항상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의 사도이시고, 영적 스승이시며 지도자이셨던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 사랑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자비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정순택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례회  
010-6375-1784

# 진주교시울대학교구 주교진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 신부  
보 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보 좌 김영우(스테 파노) 신부  
보 좌 리백진(파비아노)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22	봉헌 : 332, 513, 216	성체 : 160, 173, 164	파견 : 31
-------	---------	--------------------	--------------------	---------

### 《 축하합니다 》

1월 20일(금)은 본당 영어미사·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및 사목 담당이신 리백진(파비아노) 보좌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영육 간에 건강하시도록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 《 설 명절 미사 》

1월 21일(토) 오후 6시, 7시 미사와 22일(주일) 「설」 당일 거행되는 모든 미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명절 미사'로 봉헌됩니다. 명절 미사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한 위령미사 예물 접수하실 분들은 1월 20일(금)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시거나 설 당일 매 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 초 축성 및 봉헌 》

2월 2일(목)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당일 오전 7시 미사, 오전 10시 미사 때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성하오니 초 축성 받으실 분들은 제대에 마련된 장소에 초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동안 미사에 사용될 제대초를 봉헌 받습니다. 제대초를 봉헌해주실 개인이나 단체는 본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설 연휴 기간 고해성사 및 본당 사무실 휴무

1월 21일(토)~24일(화)은 상설 고해성사가 없고, 본당 사무실은 23일(월)~24일(화) 휴무입니다.

※본당 사무실은 1월 21일(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 22일(주일) 설 당일 정상 근무합니다.

※연휴 기간 미사는 변동 없이 그대로 봉헌됩니다.

#### ◎ 불우이웃돕기 떡국용 가래떡 판매

·판매 : 1월 14일(토요일) 오후 5시~오후 8시

1월 15일(주일) 오전 7시~오후 7시

·문의 : 안나회장 ☎ 010-9985-3972

#### ◎ 그리스도인 일치를 간구하는 일치 주간

1월 18일(수)부터 25일(수)까지는 그리스도인 일치를 간구하는 일치 주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참조)를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 ◎ 1월 세례자 감사예물

지난 주일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2,135,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 본당 재정 및 2023년도 교무금 책정 안내

어려우신 중에도 작년 한 해 동안 정성껏 교무금을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무금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본당에 교적을 둔 세대수는 총 19,586세대이며, 이 가운데 교무금을 책정하신 세대수는 2,926세대로 전체 14.9%에 불과합니다. 아직 정산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능한 대로 교무금을 납부해 주시고, 2023년도 교무금 책정에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명동대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후원금 접수

엘리사벳 장학회는 1994년 2월 설립되어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배움의 열정은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후원계좌 : 우리은행 004-611313-01-085

명동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2-1/8).....16,271,000
- 구유예물 (12/26-1/8).....11,569,000
- 주님 공헌 대축일 헌금.....34,687,000
- 감사헌금 (1/2-1/8).....558,000

도 로사 / 박 루도비코 / 박 미카엘라  
박 프란치스코 / 백 안나 / 신 레오니아  
임 사무엘 / 최 안나 / 김애리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대성당	오전 7시, 오전 9시(영어미사), 오전 10시(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오전 11시, 낮 12시(교중미사),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6시, 오후 7시(청년미사), 오후 9시				
			유이 세례 (Baptism of Infants)				
			매월 첫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주일미사 (토요일)	대성당	오후 6시, 오후 7시(늘푸른청년미사)				
	평일미사	대성당	월	오전 7시, 오후 6시			
			화-금	오전 7시, 오후 6시, 오후 7시			
			토	오전 7시			
	성지미사	대성당	월-토	오전 10시			
			한국어	토-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화-금	오전 11시 - 오후 8시		
			영어	월	오후 1시 - 5시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금	오후 4시 - 6시	토	오후 3시 - 5시